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

쇠사슬로 출입문 차단… 학생들 세워 놓고 처형하듯 쏘

■ 목격자들이 전하는 총기 난사 현장

“공포에 훨씬 학생들이 강의실 벽에 기대어 줄지어 섰으며 범인은 마치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쏘았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버지니아텍)에서 벌어진 미 역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사건이 서서히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범인을 포함해 모두 33명이 난사된 총탄에 희생됐다.

그러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것은 물론이고 범행 현장을 둘러싼 목격자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다. 다만 목격자들은 범인이 엄청난 양의 총탄을 쏟아냈으며 시종 침착하게 범행을 진행했다고 한 목소리로 전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드레이 리포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 범행현장인 공학부건물 내 강의실에서 공포에 훈련된 학생들은 벽을 뒤로 하고 줄지어 섰으며 범인은 총살형을 집행하듯 학생들을 쓰러뜨렸다. 범인은 미리 쇠사슬로 건물 출입문을 안쪽에서 끌어놓았다. 학생들은 탈출할 수 없었고 경찰은 진입할 수 없었다. 피로 범벽이 된 사체가 하나둘씩 포개 올려졌다.

이날 오전 범인은 여자친구와 기숙사에서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툐이 커지자 학생지도담당이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범인은 총을 끌어 여자친구와 학생지도당을 차례로 쏘아 숨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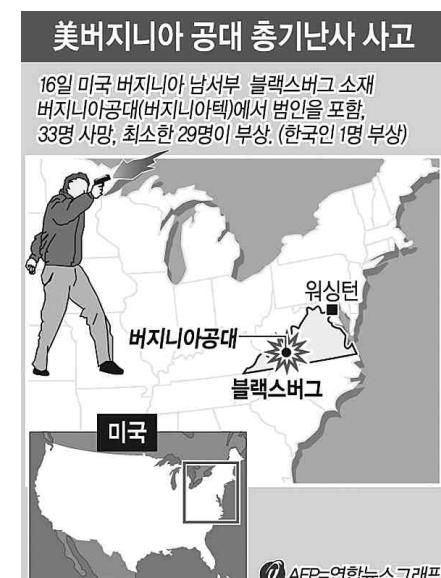
여자친구 살해하고 2시간 뒤 대학살

3차례 난사 강의실은 온통 피투성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교정에서 기숙사 반대편에 위치한 공학부 건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무자비한 총기 난사를 시작했다.

마트 멀로니라는 학생은 범인이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갖고 있었다”며 “그는 탄창이 주렁주렁 달린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교실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자는 범인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으나 눈에는 강경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범인은 갈색 모자와 가죽 재킷, 검은 군복 모양의 사격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슴에 X자 형태로 탄약을 달고 자신의 9mm 권총에 탄약을 채워 난사하면서 이 강의실, 저 강의실을 끊겨다닌 것으로 목격됐다. 또 일부 강의실의 문을 잠궈 학생들의 탈출을 막았으며 겁에 질린 몇몇 학생들은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책상으로 강의실 출입문



을 막았다.

데이비트 징킨스라는 학생은 “한 학생은 강의실 바닥에 누워 죽은 척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총격에 팔을 다친 데레 오톨이라는 학생은 “어떤 경고도 없었으며 그야말로 닥치는대로 쏘았다”며 “범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쏜 뒤 강의실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처럼 그나마 경상에 그친 학생들은 출입문을 닫아야 했다. 범인이 강의실로 다시 들어오려 했기 때문이다. 문을 막자 범인은 문에 대고 쏘기 시작했다”며 치를 떨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학생들의 증언

을 인용, 이날 총격이 매우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돼 일부 학생들은 총성을 인근 건설 현장의 밤파음으로 착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총격은 쉽없이 10~20분 계속됐으며 종종 1분여 멈춰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 범인은 총을 재장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 현장인 노리스홀에 있었던 한 학생은 이날 과제를 마치고 강의실을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왔다. 홀 전체가 연기로 가득차고 무장경찰이 건물 사방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간 스콧 L. 헨드릭스 교수(기계공학)도 이 홀 3층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기어나오는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는 뭔가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짐작, 자신의 연구실 문을 잠근 뒤 책장으로 막았다. 일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대피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알 수 없었다.

/연합뉴스



버지니아공과대학 학생들이 16일 워 메모리얼 채플 앞에 모여 총기난사로 숨진 친구들을 애도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첫 총격 2시간 후에야 위험 이메일

■ 학교 당국·경찰 늑장 대응 논란

기숙사만 통제… 2차 총격 제지 못해 대참극

미 버지니아공대 총격 참사 과정에서 대학 당국과 대학 경찰의 늑장 허술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경찰은 범인이 처음 기숙사에 침입한 것을 알고도 위험성이 기숙사에만 한정됐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난 강의동 폭 경비는 생각하지 못했는가.

경찰은 왜 범인이 처음에 2명을 살해하고 대학 캠퍼스를 떠났을 것으로 추정했는가.

첫 총격 후 2시간여 후 강의동에서 희생자가 대량 발생할 때쯤이야 캠퍼스 전체에 위험을 알리는 이메일이 보내졌는데 왜 그렇게 경고가 지체됐는가. 근본적으로 학교의 비상계획과 통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대학 차스 스테거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대학 당국은 16일 오전 7시15분(현지시각)께 첫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외부 침입자가 아닌 내부자 소행이며 범인이 달아난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난 강의동 폭 경비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기숙사 총격 즉시 기숙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900명을 수용한 기숙사 각 방을 돌며 경고할 수 있도록 사감들에게 전화 통지가 갔으며, 보안요원들을 기숙사에 배치하고 대학 구내 전체에 대한 순찰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버지니아 공대는 이미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총격 사건으로 캠퍼스가 폐쇄된 적이 있다.

美교내 총기난사 사건 일지



① 1997.10.1 미시시피 필	3 ▲
② 1997.12.1 켄터키 피우커	3
③ 1998.3.24 아칸소 존즈버러	5
④ 1998.5.21 오리건 스프링필드	4 ▲
⑤ 1999.4.20 콜로라도 리틀턴	13 ●
⑥ 1999.8.10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5
⑦ 2001.3.5 캘리포니아 샌타	2
⑧ 2002.10.28 애리조나 투손	3 ●
⑨ 2005.3.21 미네소타 레드 레이크	9 ●▲
⑩ 2006.10.2 펜실베이니아 나델 마인스	5 ●
⑪ 2007.4.16 버지니아 블랙스버그	32 ●

▲ 범인은 범인의 기족까지 살해
● 범인 사망(사망자 미포함)

/AP=연합뉴스

(주)한국에텍

‘07년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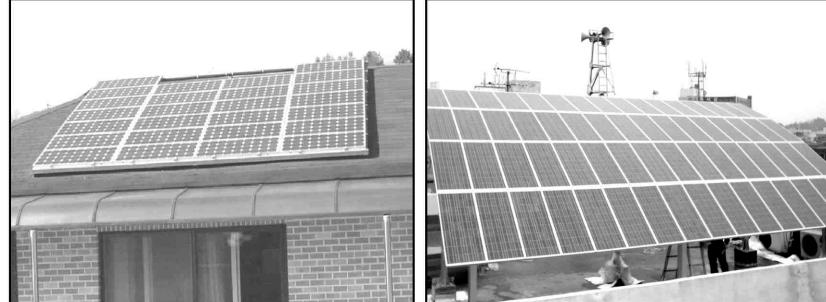


발전이 시작되면
제령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 무상 보급보조 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활용



- 정부보조금 : 총 설치비의 60% (3kwh 설치시 1,539만원 지원)
- 투자비 회수기간 : 약 5년
- 내구성 : 2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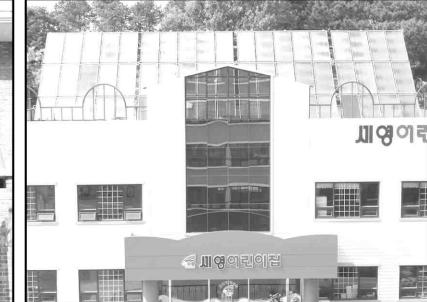
- 3kwh 설치시 소요비용
 - 정부보조금 : 1,539만원
 - 세부비용 : 전화상담

- 정부보조금 : 총 설치비의 50% (12m² 설치시 432만원 지원)
- 투자비 회수기간 : 3~5년
- 내구성 : 15년 이상

- 12m² 설치시 소요비용
 - 정부보조금 : 432만원
 - 세부내용 : 전화상담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태양열에너지로 온수와 난방으로 활용



내 집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자!

태양광/태양열시스템 무상 보급보조 사업

구 분	주택용 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날 짜	2007. 03. 05 이후	전화상담
대 상	단독 및 다세대 주택(기존/신축) 등	복지시설, 공공건물, 목욕탕, 숙박시설 등
선 정	선착순 마감	전화상담
시 공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접수 및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식회사 한국에텍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77
연 락 처	전화: 062-973-8846 팩스: 062-973-8867
홈 페 이 지	www.hketech.co.kr